

불자 세상보기



송재운 동국대 명예교수 실버타임즈 편집국장

일본의 아베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지난 14일 패전(저들은 종전이라 함) 70주년을 맞아 담화를 내면서 전쟁, 침략, 식민지배, 반성, 사회와 같은 말들을 사용, 자신들의 과거 잘못에 대해 사죄했다. 그러나 그 표현들이 교묘하고 다분히 수사적이어서 진정성이 없다는 게 국내외 언론들의 평이다. 아베 총리는 지난 1995년 종전 50주년을 맞아 당시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총리가 발표한 사죄담화를 그대로 계승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여러번 반복해 왔다. 그래서 이번 그의 담화는 미리부터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95년 무라야마 총리는 담화에서 “식민지 지배와 침략으로 아시아 제국의 여러분에게 많은 손해와 고통을 주었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통절한 반성의 뜻을 표하며 진심으로 사죄 합니다”라고 하였다.

이와같은 무라야마 담화는 전후에 일본이 일본의 과거 식민지 지배에 대해서

행한 가장 적극적인 사죄로 국제사회에서 받아들여졌고, 일본 역대 정부도 속내야 어떻든 겉으로는 이를 계승하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달랐다. 아베는 “침략의 정의는 정해져 있지 않다”고 되풀이 하면서, 일본 정부가 무라야마 총리와는 다르게, 과거 침략과 식민지 지배를 정면으로 부정하려 했다.

일본 극우세력의 속내를 그가 대변하면서 자신들의 과거 전쟁과 침략 행위가 정당했다는 것을 내세우려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번 담화에선 그의 이러한 기세는 꺾이고, 과거 일본의 잘못을 뉘우치는 논조로 바뀌었다. 역사의 진실에 대한 아베의 왜곡이 아마도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거센 비판에 직면했기 때문일 것이다. 미국이 아베의 이번 담화를 환영하고 있는 것도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일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번 아베의 담화는 전혀 진실성을 담고 있지 않은 언어적 유희와 같은 감이 없지 않다.

첫째로 아베는 일본의 침략전쟁과 약소국들에 대한 식민지 지배를 세계적 시류에 의한 일본의 생존전략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약육강식에 의한 영토확장과 부국강병을 노린 제국주의

의 본색을 교묘하게 속이고 있다.

아베는 10포인트 활자로 A4용지 4장이 3페이지가 넘는 담화문 서두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식민지배의 파도는 아시아에도 들이 닦쳤다. 그 위기감이 일본에 있어 근대화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은 틀림이 없다. <중략>일본은 새로운 국제질서의 도전자가 되었다. 나아가야 할 진로를 그르치며, 전쟁의 길로 나갔다.”

이와 같은 아베의 말에서 보면, 서양 열강의 불복화된 식민지 경제에서 일본은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었고, 이로 인해 세계 대세를 따라 일본도 침략 전쟁의 길로 전진해 갔다는 것이다.

그리고 서양의 확장되는 식민지 지배가 아시아에도 들이 닦쳐, 일본도 역시 이를 따라 배울 수 밖에 없었다는 말이다. 침략과 식민지 지배가 일본의 잘못이기 보다 서구 열강의 시대적 조류에 휩쓸린 것 뿐이라는 지극히 피상적 논리이다. 모두가 그렇다면 일본의 책임은 무엇이었는가.

다음 두 번째는 이번 담화에서 한국은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일본)는 ‘앞선 전쟁’에서 행한 일에 대해 반복해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표명해 왔다. 그 생각을 실제로 행동으로 나타냈고,

인도네시아, 필리핀을 시작으로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들 대만, 한국, 중국 등 이웃인 아시아 사람들이 걸어왔던 고난의 역사를 마음으로 새기며, 전후 일관했다는 그런 역대 내각의 입장은 앞으로 흔들림이 없는 것이다.” 이번 아베 담화에서 침략국들에 대한 사죄의 핵심 문장이다.

아베가 말하는 “앞선 전쟁”은 1931년 ‘만주사변’을 일본이 일으키고, 그들의 괴뢰정부로 ‘만주국’을 세우면서 벌이는 중-일 전쟁, 그리고 일본이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로 전쟁을 확대한 것, 또 1941년 미국을 대상으로 일으킨 태평양전쟁을 두고 한 말이다. 그 문장 안에 ‘한국’을 넣었지만 이견 우려에 대한 사죄를 전혀 심중에 두지 않은, 지극히 허구적인 겉치레일 뿐이다.

한국과 일본의 근대 역사적 관계는 1910년 ‘한일합병’ 이래 1945년 8월 일본이 패망하기까지, 일본의 한국에 대한 ‘식민지 지배’다. 그런데 위에서 보듯 이번 담화에서 아베는 어디에서도 이런 한·일의 ‘식민지 지배’ 관계에 대한 사죄는 없다.

아베는 이번 8.14담화를 통해 중국, 미국, 아세안, 유럽을 상대로 종전 70주년을 정리했을 뿐이다. 우리로서 유감 천만일 밖에.

社說

아픈 곳 해소해야 대학생이 모인다

최근 20대 젊은이들은 한국을 ‘헬조선’, ‘조선불반도’라고 부른다. 이는 취업, 결혼, 출산 등 어느 하나 녹록치 않은 한국 사회의 현실을 비판적으로 묘사하는 자조적 표현이다. 반대로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젊은이들의 분투는 눈물겹다. 끝없는 경쟁에 내몰리다 보니 대학 동아리도 영어 스테디나 창업, 공모전 등을 준비하는 동아리가 인기다. 종교 동아리에는 관심을 갖기가 어렵다.

실제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에 따르면 2009년 158개 대학 지회가 있었지만 2015년 현재 122개 대학 지회로 줄었다. 6년만에 36개 지회가 줄어든 것이다.

8월 17~18일 열린 한국교수불자연합회의 교수불자대회에서 ‘대학생 불교 동아리 활성화’를 주제로 특별회의가 진행된 것도 대학생 포교가 흔들리고 있다는 위기감이 들기 때문이다.

이날 발표된 총북 영동대 포교 방법은 현재 대학생들의 아픈 곳을 긁어주고 불교에 접근하도록 만드는 모범 사례다. 이규호 영동대 경찰소방행정학과 교수가 추진하는 불자 선후대 네트워크를 통한 취업 멘토링으로 전무

했던 법회 참가자가 50명 가까이 늘어났다. 학생들의 호응도 좋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부산불자교수연합회가 주축이 돼 2012년부터 진행 중인 대학간 연합법회도 눈에 띄어 왔다. 부산 지역은 대학 내 불교 동아리 회원이 1990년 1500명에서 2006년 150명으로 급감했지만 이 같은 연합법회를 통해 플라구를 마련했다. 부산의 대학간 연합 법회 역시 신도회의 기업 대표들, 교수들과 법회 후 영화 관람과 식사를 함께 하는 등 변화를 모색했다. 단순한 법회로는 학생들 이 오지 않는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계층 포교는 철저하게 대상 계층에 대한 ‘눈높이’에서 이뤄져야 한다. 단순한 힐링과 마음의 위안만이 실제적인 포교 효과를 가져오지 않는다.

한국갤럽의 2015 통계에서도 나오듯이 단순한 힐링법회와 템플스테이는 포교적 효과가 없다. 대학생 포교의 기본은 그들 입장에서 생각하고 아파하고 공감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사찰·오피니언 리더 신도·교수의 삼박자 네트워크가 이뤄져야 한다.

불교무용대전에 지속적 관심

7월 3일부터 26일까지 서울 대학로 소극장-스튜디오 SK에서는 뜻깊은 행사가 펼쳐졌다. ‘제 1회 불교무용대전’이다. 그동안 음악제와 미술제 등 문화관련 행사들은 많이 열렸어도 무용제는 처음있는 일이라 불교계 문화인사들은 귀를 쫑긋 세웠다.

대한불교조계종의 후원과 (사)한국춤예술센터 주관으로 열린 이번 대회서 대상인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상은 전북대 이화석 무용학과 교수가 ‘다비’라는 작품으로 수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이번 대회서 이 교수는 불교의 자비와 구도정신을 몸짓 언어인 무대예술로 승화시켜 심사위원들로부터 불법승 삼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불교 예술의 대중화에 이바지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특히, 이 교수는 이번 공연을 관람한 일본

기획자로부터 내년 10월 일본 아키타현서 열리는 ‘이시야바쿠 댄스 페스티벌’에 초청 요청까지 받아 다시한번 일본에 불교 포교 무용인 ‘다비’를 선보일 수 있는 좋은 기회까지 얻게 됐다.

무용 포교의 중요성은 그동안 계속 강조돼 왔다. 하지만 예산 부족 등으로 굶직한 행사는 엄두조차 못했다.

그렇고 이번 행사는 조계종 문화부의 후원금이 첫 무용대전을 여는 기폭제가 됐다고 한다. 물론 아쉬움도 있다. 총무원장상에 상금이 없었다. 예산부족으로 후원금만으로 만족해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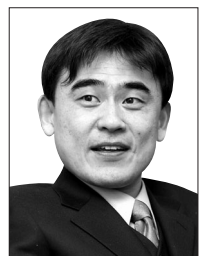
무용도 음악과 미술 못지않게 중요한 포교예술의 한 분야이다. 이번 첫 대회를 기점으로 앞으로도 불교계가 꾸준히 관심갖고 적극 후원해 명맥이 끊기지 않길 기대한다.

발언대

재가운동 어떻게 할 것인가

94년 불교개혁정신을 실천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8월 20일 3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위기의 한국불교, 재가 불자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불교개혁 운동의 주제와 방안 등이 논의됐다. 주요 발표를 정리했다. <편집자주>

비제도권의 연대가 필요하다



김형남 참여불교재가연대 공동대표

조계종단은 대한민국 0.9%에 해당하는 토지를 보유하고 있고, 3000개의 사찰과 문화재 대부분과 정신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조그마한 기득권에 집착하는 게 얼마나 우스운지 모를 거대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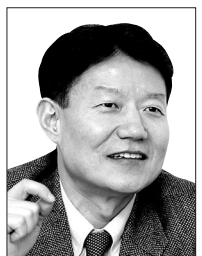
1994년 종단 개혁 정신의 진짜 의미는 종단과 사찰의 공공성이다. 이러한 과정을 가기 위해서는 이제부터 ‘무엇을 하자’고 하기보다는 ‘이것은 하지 말자’는 의침이 분명해져야 한다. 상벌을 분명히 하는 교단을 만들어야 한다. 결국 이름값을 못하면 없어지던가 이름을 버꿔야 하는 것은 재가단체도 마찬가지다.

가치지향적 집단에서 결국 시대 상황에 따른 올바른 변혁방향이 없으면, 집단의 수준이 떨어진다는 것은 역사 속에서 증명된다. 이를 위해서는 개혁의 주체가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

불교변혁운동은 1994년도에 그랬듯이 사회적 상부구조를 변혁시켜 사회를 정화시키는 지향을 가지고 있고, 그에 맞는 주제 이론을 갖고 있어야 된다. 따라서 지계를 중심으로 행위에 대한 상벌의 평가가 정확히 이뤄지고, 역사의 의미와 판단을 존중하면서 비기득권적 비제도적 의식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총합인 비제도권연대가 필요하다.

이러한 매개로 폭넓은 연대가 가능한 틀을 만들기 위해 여러 단체와 개인의 외침에 신뢰성을 부여하는 역할은 아직은 참여불교재가연대에 있다고 본다. 결국 이름값을 못하면 없어지던가 이름을 버꿔야 하는 것은 재가단체도 마찬가지다.

주체적 신앙 능력을 배양해야



우희종 서울대 수석학과 교수 비문불교재가모임 상임대표

앞으로의 재가 운동에는 종단이나 특정 스님과의 연관성이 적은 참신한 이들을 발굴해서 재가운동 전면에 나설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며, 종단 내부 상황을 잘 아는 경력 이 많은 기존 재가 활동가는 그런 이들을 뒤에서 도와주고 지원하는 역할분담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법계나 부패에 있어서 특정사회에서의 허용범위라는 것이 있다. 집단의 위기는 그러한 허용 범위를 넘어설 때 초래된다. 그렇기에 현재 제기되고 있는 한국불교의 위기상황을 개선하고자하는 최소한의 개혁 의지가 있는 스님들과는 언제나 연대하는 열린 자세로 임하고 힘을 합쳐 상황을 풀어야 한다.

또한 모든 것을 버리고 출가한 이들에게 억 단위의 돈이 부담없이 뒷거래되고 개인 소유로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찰 재정 투명화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며,

굴종의 신앙을 넘어 주체적 신앙은 청정 수행을 위한 첫 걸음이다. 종단 내에서 제대로 수행하며 전법에 힘쓰는 바른 승려에 대해 널리 소개하고 이들에게 적극적으로 보시하는 운동을 전체 재가단체에서 펼쳐지도록 해야 한다.

이와함께 종교의 사회적 기능 중 하나인 천도제 등 각종 의례 비용이 너무도 천차만별이라 신도들의 불만이 많다. 사찰 의식에 대해 합당한 기준 비용을 제시하고 이를 종단 차원에서 강력히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단지 돈이 된다는 것 하나로 신도들을 부처님 말씀과 거리가 먼 잘못된 가르침이 유행하는 것을 방지해서는 안 된다.

300질 한성판 예약 《벽암록》과 함께 쌍벽을 이루고 있는 공안집 《종용록(從容錄)》역주·해설판(전 5권)

천동정각(天童正覺) 송고(頌古) / 만송행수(萬松行秀) 평창(評唱) 석지현 역주·해설(벽암록 역주·해설자)

《종용록(從容錄)》은 벽암록과 더불어 선가(禪家)의 필독서! 선종의 공안 송고 평창집(公案頌古評唱集:공안에 대한 송과 평론, 주석, 해설서)

이 종용록은 원문을 수록하고 현도·완역했으며, 또한 각 단락마다 상세한 해설과 주석을 달았고, 《종용록 어휘사전》까지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종용록 어휘사전》은 종용록에 나오는 문어체와 구어체 등 모든 용어를 해설한 사전입니다. 이 사전 한 권만 있어도 선어록을 보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역주·해설자는 《벽암록》전 5권 값 145,000원)을 역주·해설한 석지현 스님으로 번역 기간은 7년이 걸렸습니다.

- ▶출간일 9월 30일 / 배본일 10월 5일부터 배본
▶하드카바 / 각권 400~450쪽 어휘사전 198쪽
▶평가: 전 5권 값 165,000원
▶예약: 민중사 02-732-2403~4
▶예약금: 65,000원
▶송금은행: 농협 053-02-109450 윤재승 / 국민은행 006-01-0773-002 윤재승

위로와 응원이 빛나는 일감 스님의 금강경 이야기!

일감 스님의 금강경 내비튜 북 토크 콘서트에 초대합니다

일시 2015년 8월 21일 금요일 저녁 7시
장소 조계사 내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2층 전통문화예술공연장
특별 출연 이창선과 친구들(퓨전국악팀)

‘내비튜 콘서트’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일감 스님이 관계의 미학으로 풀어낸 금강경



일감 저음 115,000원

법보시는 최상의 공덕입니다. 선망 조상님과 용맹 정진하신 스님들께 공양 올리는 백종날 《금강경을 읽는 즐거움》을 법보시 하시면 크나큰 공덕이 되실 것입니다.